

최순실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제 정확한 걸 밝히겠다”

‘국정농단’ 첫 재판 공판정 표정

쓰러질 듯 검찰에 출두하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 한 달 반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엔 선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판 417호 대법정.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재판장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적 지탄이 억울하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최서원 피고인”, “네”, “독일에서 왔을 때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고 했었는데...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을 때 포도라인 앞에서 말한 내용과 사뭇 대비된다.

그는 당시 쏟아지는 질문 속에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며 울먹거리며 사죄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취재진을 벗어나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었다.

하지만 19일 여성 미결 수용자용 겨울복장인 밝은 연두색 수의 차림에 검은 벨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들어선 최씨는 비교적 침착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통해 인적사항과 주소지 등을 묻자 차분히 “네”라고 답했다.

함께 기소된 안중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서 출석할 의무가 없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자 최씨 변호인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법정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최씨도 “마찬가지”라고 의사를 밝혔다. 국민 정서가 반영될 수 있는 ‘여론재판’은 피하고 법정에서 검찰과 법리공방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인적·주소지 차분히 대답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안중범·정호성 출두 안해

최씨는 침착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정면을 응시한 채 긴장한 모습이었다. 머뭇거리듯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아 방청석에서는 “방금 뭐라고 한 거냐”고 낮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자 최씨는 법정경위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떠나며 서너 차례 방청석을 응시했다. 일부 방청객은 의아한 듯 “(최씨가) 여길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출근 재판장을 지켜본 방청객 김모(25·여)씨는 “법정에서 사실이 다 밝혀져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추첨을 통해 출입증을 받은 방청객만 입장시켰고, 입구에서 금속탐지기로 몸수색을 하는 등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다.

법정 안에 1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하고 법원 청사 바깥에 경찰 병력 총 160명 가량을 동원했다. 다행히 재판은 별다른 동요나 소란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12명이 출석했다. 6명이 공소유지를 위해 최씨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 6명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은 예정 시간을 10여분 넘긴 오후 3시 16분께 마무리됐다. 공소사실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나누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野 “박대통령 탄핵 답변서는 뻔뻔한 궤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반박한 것과 관련, “뻔뻔한 궤변”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주미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연좌제 금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최순실이 친족이기 때문에 죄 씨가 지은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최순실이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미국 대

통령·주지사 등의 사설 고문단)이라는 것에 한참 웃었다”며 “내가 어디를 전담했기에 캐비닛이라고 하는가. 프로포폴을 전담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역시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마지막 도리”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궤변은 정말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최순실 보자”... 줄지어 선 방청객 ‘비선 실세’ 최순실 관련 사건 첫 재판이 열린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방청객들이 줄을 서 신원확인 후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탄핵심판 준비기일 이르면 주중 결정

재판관 전체회의... “21일 이후 준비절차기일 열 것”

헌법재판소는 19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준비절차기일 지정과 검찰·특검 수사 기록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향후 진행방향 등을 논의했다.

일단 헌재는 이번 주에 준비기일을 결정해 신속히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을 참고해 21일 이후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신속,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집중해서 심리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이 통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들도 준비절차기일을 이번 주 중으로 지정하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헌

재의 요청에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이종환 변호사는 “준비절차 기일에 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며 “신속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국회 소수위원 대리인단도 “준비절차 회부 여부 및 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헌재가 입증 계획 및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21일 이후로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15일 국회에 정정 정리를 위한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을 21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헌재는 또 검찰과 특별검사 측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료 확보가 지연되면) 준비절차나 변론절차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수사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답변서를 통해 주장한 ‘헌재법 51조에 따른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정지가 가능한지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부연했다.

헌재 측은 내일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심판 진행 방안과 기록 검토 문제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세월호특위 위원

민주당 의원 7명

진도 인양현장 참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9일 진도 인양현장을 방문했다.

민주당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이날 오전 진도 팽목산을 방문해 세월호 인양작업을 참관했다.

전해철 위원장과 간사를 맡은 박주민 의원, 송영길, 김철민, 김현권, 위성근, 재운경 의원은 팽목항 분향을 시작으로, 미수습자 가족을 면담한 뒤 인양 작업선으로 이동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찾은 것은 ‘세월호 의문’ 해소를 촉구하고 인양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전 위원장은 약속했던 인양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인양 방식이 플로팅 독 방식에서 ‘잭강바지선으로 인양해 반(半)잠수식 선박에 탑재한 뒤 옮기는 방식’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인양 업체인 중국 상하이샬비지의 장 홍 부사장은 “처음에는 큰 크레인으로 플로팅 독(선박 건조 공간)에 올려 9월 안에 세월호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계획했다. 45일 이상 좋은 날씨가 지속해야 하는데 선미 부분에 리프팅 빔을 놓고 나니 예로 사행이 발생, 겨울에는 그 방식의 인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레인 방식은 2017년 5월까지 기다렸다가 작업해야 한다. 그래서 겨울에도 작업할 수 있도록 반잠수바지선을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은 2014년 11월 세월호 수색을 종료하면서 해수부가 밝힌 대로 선체 창문 등이 잘 막혀 있었는지를 물으며 특수위가 입수한 영상 자료에는 막혀 있지 않은 곳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본격적인 인양을 위해서는 4~6월에 충분한 작업 시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미수습자인 단원과 조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희씨와 권태근씨·권혁규군 친척 권오복씨도 동행했다. 이금희씨는 “인양을 꼭 해내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최현일기자 cki@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터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초특가 실속규슈여행!

(단 3회! 12/19, 12/22, 12/25)

★고품질 북큐슈여행!

(단 3회! 12/19, 12/25, 12/28)

규슈 출발일 :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오사카 출발일 :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오사카 설연휴 :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교토/나라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499,000원

699,000원

548,000~

838,000~

838,000~

1,168,000~

1,168,000~

1,298,000~

1,388,000~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1,498,000~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골프]다낭 골프 54홀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권 클럽 중식 불포함)

1,149,000~

1,649,000~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롄/지우펀

[풍격]타이페이/야류/화롄/지우펀

[실속]타이중/야류/화롄/지우펀

[풍격]타이중/야류/화롄/지우펀

699,000~

799,000~

899,000~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벌제품★
한벌에비유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등다 2003-1호**

●공동대표 : 항공 및 선박 전문비즈니스/전지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경비업(등단,가사/가이드봉사료,선박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용에 따라 다름

●공동주관 여행 경비 1인 기준 :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계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